

구약논찬

제17권 3호(통권 41집) 2011년 9월 30일

한 동구(평택대) 잠언의 지혜신학에 반영된 공정한 사회이념 12
이 논문은 잠언의 중심 부분(잠 10: 1 - 22: 16)을 분석하여 부의 분배의 원칙과 이 원칙 강화 양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밝혀낸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새로운 분류 방법을 통해 잠언의 분석을 시도한다. 저자는 잠언의 초기 구절들에서 '부의 획득의 원칙'(=노력의 대가만큼 부를 획득해야 한다)을 찾고, 다양한 가치평가와 종교적 동기를 통하여 원칙의 강화과정을 밝힌다.

Han, Dong Gu The 'Idea of Impartial Society' Reflected in the Wisdom Theology of Proverbs 12

잠언1)의 지혜 신학에 반영된 ‘공정한 사회의 이념’

한 동구 | 평택대

1. 문제의 제기

최근(2011년 봄) TV프로그램 중에서 “위대한 탄생”과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두 프로그램은 노래에 대한 경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순위가 정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탈락하기도 한다. 치열한 경쟁을 통한 생존 프로그램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TV포맷이 되었다. 2010-2011년 한국 사회의 화두는 ‘정의로운 사회’ 혹은 ‘공정한 사회’였다. 한국 사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강렬하다.

공정한 게임의 룰에 대한 열망도 두드러진다. “나는 가수다”에서 ‘악속 파기’라는 반칙으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게임의 룰이 공정하면 실력대로 승패가 가려진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정의’라고 여기고 있다. 한국 사회가 희망하는 것은 학연, 지연 그리고 유명세 등을 모두 무시하고, 오직 실력을 통해 승패가 가려진다는 믿음에 근거한 ‘공정’으로서

1) 잠언에 대한 연구는 박 준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운동,” 『구약논단』 제 8집 (2000년), 133-149쪽. 천 사무엘, “잠언연구의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제 14권 4호(제 30집 2008년 12월 31일), 147-166쪽 등을 참조하시오.

의 정의론'이다.

20세기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은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및 부의 분배에 대한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일이다. 지난 20세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정부의 보호나 특혜 속에서 성장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공정한 부의 분배라는 차원에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최근 '정의'에 관한 두 권이 책이 소개되었다: 존 롤즈의 「정의론」(2003)과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2010). 이 중 롤즈의 「정의론」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을 제기한다. 롤즈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등한 원초적 입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차이가 없는, 다시 말하여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에 의한 유리함이나 불리함이 없는 원초적 상황을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만이 개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함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롤즈는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주장한다. 첫 번째 원칙과 관련하여, 봉건 귀족 계급이나 카스트 제도와 같이 출생이라는 우연 혹은 불합리한 임의성을 기준으로 소득, 재산, 기회 및 권력을 배분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이와는 반대로 시장 사회는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법 앞에서 평등을 보장하여, 어느 정도는 임의성을 교정한다. 시민들은 기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소득과 부의 분배는 자유 시장에서 결정한다.

둘째는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된 원칙이다.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노력과 경쟁을 허용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게 배분될 수 있다.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면, 그 경기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형식적 기회 균등을 넘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대표적 예로,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롤즈는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이라는 우연과 임의성에 의해 부와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상황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롤즈는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재능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재능과 소질의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 잡는다. 그 방법은 재능 있는 사람을 격려해 그 재능을 개발하고 이용하게 하되, 그 재능으로 시장에서 거두어들인 대가는 공동체 전체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롤즈의 주장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마이클 샌델은 원초적 상황에서의 평등을 지나치게 고집할 경우, 능력 있는 자들의 재능 발휘 의지를 꺾을 수 있으며, 재능 발휘를 위한 모든 노력을 타고난 재능의 결과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현대 사회과학자의 주장과 같은 완전한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이론적 토대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최초의 노력(혹은 초기의 노력)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사울에 의해 왕정이 도입되었으며, 다윗-솔로몬에 의해 제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정신이 나타나게 되었다.²⁾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국가를 이루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또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제 정의와 같은 사회 질서가 필요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와 매우 유사하다(최소한 기본적인 토대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선진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성의 확보, 법과 원칙에 근거한 행동 규칙, 합리적 세계관 등은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 특히 다윗-솔로몬 시대에는 합리적인 부의 분배를 위한 노력과 평등한 원초적 상황의 형성을 위한 노력 등 다윈적 세계에서 합리적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2) 폰 라트(G. von Rad)는 다윗-솔로몬 시대에는 “계몽된 정신 하에서 지혜문학 및 문화 운동이 전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 새로운 문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히 밝혀내고 있지 못하다. 폰 라트의 주장을 브루지만(W. Brueggemann)에 의해 다소 진전시키기도 하였으나, 크렌쇼(J. L. Crenshaw)의 경우 폰 라트가 전제하는 초기 잠언의 형성연대를 달리 보고 있어, 이러한 주장이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브루지만, 『지혜전승연구』(장 일선역),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0). 원제는 W. Brueggemann, *In Man We Trust*. 폰 라트, 『구약성서신학 III』(허 혁역), (경북: 분도출판사, 1980).

본 연구를 위해 중요한 성경 본문은 잠언이다. 이미 경제적 관점에서의 잠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잠언의 노력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잠언의 문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잠언 연구의 방법론적 성찰과 함께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잠언의 중심 부분(잠 10: 1 - 22: 16)의 역사적 배경을 모두 다윗-솔로몬 시대로 고정하는 데 이론이 없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연결하여 사유할 때, 보다 분명하게 잠언 중심 부분의 의도를 밝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언의 의미를 역사적 배경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다윗-솔로몬 시대의 역사적 배경

이스라엘 사회는 기원전 12-11세기에 사사 시대에서 영토를 가진 왕조 국가로 전환하였다. 지파 사회가 상비군과 중앙 정부를 가진 국가로 변모하였다. 이 전환은 이스라엘의 사회사와 종교사에 커다란 획을 긋고 있다. 한편으로 자유와 개방이라는 시대정신이 꽃을 피우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다양성 속의 통일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먼저 다윗-솔로몬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넘어 사회-문화사적 연구를 통하여 다윗-솔로몬 시대의 시대적 과제와 시대정신의 해명에 주력하고자 한다.

1) 사울 시대

사울은 남부 베냐민 지역 출신으로(삼상 9: 1-2), 소규모의 상비군을 거느리고 기브아-믹마스 근방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쫓아내고 자리를 잡았다(삼상 13: 2 - 14: 46). 그 후, 길르앗 아베스에서의 승리 후(삼상 11장)에 그의 영향권은 에프라임/이스라엘 지파들의 영토를 포괄할 만큼 확대되었고, 또 네게브에 있는 이말렉 족을 무찌르고 헤브론 남동쪽에 있는 성읍인 갈멜에 승전비를 세웠다(참

3) R. N. Whybray, *Wealth and Poverty in the Book of Proverbs* (JSOT 99), (Sheffield: JSOT Press, 1990).

조, 삼상 15장). 사울은 이즈르엘 계곡의 남동쪽 끝 길보아 산기슭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최후를 맞는다(삼상 31장).

2) 다윗 시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헬 출신으로, 사울의 직업 군인으로 궁정에 들어갔다. 다윗은 사울과의 갈등 후 남부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군대를 조직하고(삼상 22: 1-2), 남부 구릉지대에서 활동했다(참조, 삼상 23-26).

다윗은 블레셋의 봉신으로 들어가 시글락에서 분봉 왕으로 활동하였고(참조, 삼상 27: 1 - 28: 2; 삼상 29: 1-11),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한 후,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되었고(삼하 2: 4), 또한 북 지파의 왕이 되었다(삼하 5: 1-3). 그 역사적 과정은 분명치 않으나, 설득이나 강압적 수단도 배제할 수 없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 일차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가나안족의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였다. 그는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수하였고, 이후 주변 국가를 침공하여 팔레스타인-시리아 지역에서 제일 강국으로 변모시켰다.

3) 다윗-솔로몬 제국의 영토

다윗 제국은 팔레스타인-시리아에 걸쳐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였다. 따라서 다윗의 제국은 분명히 동질적인 단일 민족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 그리고 시리아-다메섹 사람들이 제국에 편입되었다.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주로 합병되었다. 다메섹 아람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삼하 8: 6). 그러나 다른 아람 지역은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이 되었다. 모압은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속국이 되었다(삼하 8: 2). 하맛의 경우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이 되었다(삼하 8: 10).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은 유다를 중심으로 한 다원적 정치 구조를 이루었고 이는 명백히 제국을 이루었다.

4) 시대적 과제

다윗-솔로몬 시대, 혹은 왕조시대의 초기의 상황은 다원적 정치 구조이다.

다양한 민족이 한 국가라는 한 정치적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경제 정의를 위한 잠언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잠언의 연구 방법에 대한 제안

잠언에는 무수한 주제의 잠언들이 상호 연계성 없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그 내용을 하나로 종합하기가 불가능하며, 내용상 특정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거나 전제하는 내용도 전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잠언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효과적인 방법이 형성되지 못했다.

(책으로서의) 잠언은 내용상에 어떤 맥락이나, 편집/구성 상 어떤 형성 원리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 우연성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잠언들의 나열만 발견된다. 따라서 잠언의 신학 사상을 밝히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잠언 분석의 새로운 방법론적 성찰과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잠언의 전체 구절을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몇 가지 영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⁴⁾

- 언어 영역에 속한 구절들
- 경제 영역에 속한 구절들
- 교육, 훈련, 지혜-미련 등의 영역에 속한 구절들
- 선과 악의 영역에 속한 구절들
- 인격적 자질의 영역에 속한 구절들

각 영역에 속한 구절들은 다시금 주제별로 세분화하여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 영역에 속한 구절들을 다시금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 상거래 및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전하는 구절들
- 근면과 게으름에 관련된 구절들

4) 특정 언어, 예를 들어, 하나님-아훼 등과 같은 신적 존재를 언급한 구절, 왕과 임금과 같은 통치자에 대한 구절을 분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또 일부의 구절은 두 개 이상의 영역에 중복적으로 속할 수도 있다.

경제 활동을 평가한 가치 표현의 구절들
구제에 관한 구절들

잠언에서 경제 영역에 속한 구절들은 주로 비교적 고대 잠언의 편집록인 잠 10장 1절 - 22장 16절에 집중되어 있다. 잠 10장 - 22장 16절은 총 375절이며, 이 중에서 경제활동에 관한 구절은 102절이다(잠언 전체에서는 총 157절이다).⁵⁾

	1-9장(256)	10장-22장 16절(375)	22장 17절-31장(284)
상거래 및 경제활동	2	15	4
근면과 게으름	4	27	22
경제활동의 속성 및 가치 표현	2	48	6
구제와 관련된 구절	2	12	7
기타	4		2
합계	14	102	41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분화된 구절들을 사유의 발전 과정에 따라 다시금 삼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된 구절들 가운데 단순한 현상의 표현은 초기 구절들에 있다. 이들은 원인을 표현한 구절과 그 결과를 표현한 구절 속에서 원인에서 결론에 이르는 내적 논리, 즉, 인과율이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물의 흐름이 합리성에 의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합리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하여 외적 논리, 즉, 가치를 부여한 평가 표현이 나타난다. 이러한 외적 논리는 종교적 동기를 통하여 더욱 강화된다.

단순한 현상을 표현한 초기 구절
가치평가가 결합된 발전된 구절
종교적 동기가 부여된 발전된 구절

5) 나머지 구절인 55절은 단순한 현상을 표현한 구절보다는 다양한 동기가 결합된 이차적인 구절로 나타난다.

4. 부의 분배의 원칙

부의 분배의 원칙을 앞서 분류한 근면과 게으름을 나타내는 구절들과 경제적 활동에 관한 가치 표현을 나타낸 구절들에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⁶⁾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부의 분배에 대한 공정성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잠언에서는 부의 분배는 개인의 근면과 게으름에 달려 있음을 지적한다. 잠 10장 4절에서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기록한다.⁷⁾ 부의 결과는 근면한 노력의 대가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잠 15장 22절의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는 말씀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래의 지파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인간적 노력에 의해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의 분배에 대하여 매우 낙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초기에는 매우 낙관적인 경제관을 견지했다. 따라서 근면의 결과 얻게된 부는 자신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과 같으며, 게으른 자는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잠 10: 15; 참조, 잠 18: 11; 22: 7).

이러한 낙관적 경제관 배후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 잠 12장 11절에서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라고 기록하며, 또한 잠 13장 23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받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라고 기록한다. 이와 반대로 잠 20장 4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라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 잠언의 독자, 즉, (초기) 잠언이 전제하는 사회는 대부분 자신의 농토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롤즈가 말하는 원초적 상황에서의 공정성이 최소한의 범위에서나마 확보된 상황이다.⁸⁾

6) 이 두 영역은 서로 밀접히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잠 12장 24절에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잠 22장 7절에서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라고 언급하였다. 양자는 모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지배한다, 혹은 주관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전자에서는 지배의 원인이 근면과 게으름에 있음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7) 참조, 잠 12: 14; 12: 16; 13: 4; 13: 23; 14: 23; 18: 9; 19: 15; 20: 13; 21: 5.

8) 물론 고대 이스라엘 사회, 특히 왕조 시대의 초기, 즉, 잠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시대에도 가난한 자는 물론 채무 노예도 존재했다.

이처럼 원초적 상황이 비교적 공정했던 상황에서, 고대 지혜 문학의 중요한 과제는 우연한 것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지배하는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다. 잠언의 모든 구절은 (예외 없이) 하나의 원인 **구절**과 하나의 **결론 구절**이 결합되어 있다. 여기에는 행동과 성과의 연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지혜 신학자들은 부의 분배 원칙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들은 잠 12장 14절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죽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라고 천명한 바와 같이, 노동의 대가만큼 부를 얻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참조, 13: 11; 14: 23).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되고(참조, 12: 27), 태만한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보았다(참조, 19: 15).

지혜 신학자들은 이러한 인과론, 즉, 행동과 성과의 법칙에 근거하여, 제국의 질서를 수립하고, 다원적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칙을 수립한 것이다.

5. 부의 분배 원칙의 강화(I)

1) 게으른 자의 행동 특징에 대한 묘사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들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나 특징¹⁰⁾을 상세히 묘사하여 부의 분배 원칙을 강화시켰다.¹¹⁾ 불성실한 자는 마땅히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 게으른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나태함’이다. 이들은 일하기를 싫어한다(잠 21: 25). 잠 12장 27절에서는 사냥을 할 때에도 게을러 아무 것도 잡지 못한다고 비아냥대고 있다. 더욱이 잠 19장 24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라고 한심스러워하고 있다.

게으른 자는 일반적으로 노동을 해야 할 때 잠을 자는 불성실한 자들이며, 잠 때문에 자신의 일을 게을러 하는 태만한 자라고 평가한다. 잠 19장 15절에서는

9) 폰 라트, 『구약성서신학 III』 146-161쪽.

10) H. Delkurt, *Ethische Einsichten in der alt. Spruchweisheit* (BThSt 21), (Neukirch-Vluyn: Neukirchner Verl., 1993), 69-77쪽. 그는 게으른 자의 특성을 세 가지 나누어 설명한다: 1) 과도한 수면; 2) 적시에 노동을 하지 않음; 3) 모든 일에 나태함. 놀기를 좋아하는 형태를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11) 게으른 자의 나태함을 총체적으로 묘사한 구절이 있다: 잠 6: 6-11; 24: 30-34; 26: 13-16. 이 구절들은 대부분 후기의 지혜신학적 해석이 동반되어 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고 말한다. 잠 20장 13절에서도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빈궁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넉넉한 양식을 위해서는 잠에서 깨어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일에는 그 때가 있다. 특별히 농사에는 더욱 그렇다. 씨뿌릴 때 씨를 뿌리지 않거나, 추수할 때 추수를 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 잠 10장 5절에서는 잠자기를 즐겨하는 게으른 자는 추수 때 잠을 자다가 그 시기를 놓쳐 농사를 망치고, 이로 인해 빈궁에 빠져, 결국 구걸을 하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부모를 부끄럽게 만드는 자라고 비난한다. 그리고 잠 20장 4절에서는 구걸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임을 경고하였다.

게으른 자는 놀기도 좋아한다. 잠 21장 17절에서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쁨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고 말한다.

잠언에서는 근면한 자의 행동 특징을 소상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게으른 자의 태도와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구절의 저자나 전승자는 게으름을 경계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¹²⁾

2) 재물의 가치나 사회적 효능의 묘사

부나 재물의 가치나 사회적 효능을 설명하므로, 이러한 부의 분배 원칙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경제적 활동에 관한 가치 표현의 영역에서 단순한 현상을 표현한 초기 구절들¹³⁾에서는 재물을 매우 유익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잠 19: 4). 그러나 가난한 자는 친구가 끊어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한다고 말한다(잠 14: 20; 19: 4; 19: 7).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아서(참조 잠 10: 15; 18: 11), 자신을 잘 지켜줄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자신을 지킬 도구가 없으므로, 멸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참조, 잠 10: 15). 따라서 가난한 자와 부자는 상반된 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았다. 가난한 자는 무엇인가 얻으려고 간절한 말을 하나, 이와는 달리 부자는 모든 일에 당당하게 대하며, 때로는 원칙적인 말, 듣기에는 엄하게 들리는 말로 대답한다고 하였다(참조, 잠 22: 16).

12) H. Delkurt, *Ethische Einsichten*, 80쪽.

13) 잠 10: 15; 14: 20; 18: 1; 18: 11; 18: 23; 19: 4; 19: 7; 22: 7; 22: 16.

6. 경제 활동의 가치 평가를 통한 부의 분배 원칙의 강화(II)

분배의 원칙은 다양한 가치 평가를 통하여 강화되었다. 경제활동의 단순한 현상을 서술한 초기 구절에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지배한다’고 기록한다(잠 12: 24; 참조, 잠 22: 7). 그 원인을 ‘근면성’에 두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가치 평가를 부여하여 더 강화시킨다. 잠 17장 2절에서 ‘근면한 부자’를 ‘슬기로운 자’로 평가한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기에서는 부자 대신에 슬기로운 자로 수정하고, 가난한 자 대신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자로 고쳐 읽고 있다.

지혜 신학의 발전과 함께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일을 하는 부자로 수정한다. 잠 20장 18절에서는 전쟁에서 잘 싸여진 작전(=지략)이 매우 중요하듯, 사업을 경영할 때에도 중의를 모은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근면과 성실이 강조되었다면, 공동체 경영에서는 지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재물이 많음을 지적하며(잠 21: 20), 가정에서 지혜로운 여성이 칭송되며(잠 11: 16; 14: 1), 또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는 지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잠 11: 14).

또한 잠 18장 11절에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라고 말하듯(참조, 잠 10: 15), 초기의 낙관적인 경제관에서는 부/재물의 효능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낙관적 이해는 잠 14장 24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라고 수정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지혜라는 가치 평가가 부여된 재물이다. 또한 재물을 얻는 것보다 지혜와 명철함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잠 16: 16). 뿐만 아니라, 잠 12장 11절에서는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를 지혜 없는 자라고 평가한다.

7. 분배 원칙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수정 노력

1) 부 획득 수단의 성찰

다양한 가치 평가를 통한 분배 원칙의 강화는 물론, 이와 동시에 부를 획득하는 수단에 대한 성찰도 보여준다. 또한 불법적 수단에 의해 부의 획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부의 효능에 대하여 무한한 가치를 부여했던 입장을 수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부의 분배 원칙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부를 획득하는 수단의 공정성을 주장한다.

잠 13장 8절에서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고 말한다. 상반절에서는 여전히 부의 효능에 대하여 낙관적이며, 긍정적 입장을 유지한다. 그러나 하반절에서는 부 획득의 수단에 대한 성찰의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 무리한 수단이나 불법적 수단으로 부 획득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망이나 협박을 받지 않을 것임을 말한다(참조, 20: 17; 21: 6).

부 획득의 정당한 수단을 강조하는 성찰의 구절도 있다. 잠 16장 8절에서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고 기록한다(참조, 19: 1; 19: 22). 무리한 수단이나 불법적 수단에 의한 부 획득보다는 공동체의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잠 18장 1절에서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라고 말한다. 공동체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잠 15장 17절과 17장 1절에서도 보여준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잠 17장 1절에서도 “미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물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기록한다. 또 공동체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겸손을 강조하기도 한다. 잠 16장 19절에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한다.

그래서 잠 19장 1절에서는 당장 소득은 없을지라도 성실하게 노동을 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평가한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지혜로운 자라 칭하는 않았으나, 그 반대를 미련한 자라 칭한 것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불법적 수단으로 부를 획득하여도 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잠 13장 23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라고 말한다. 상반절에서는 성실한 노동만이 부를 획득할 수 있고, 또 부유해질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하반절에서는 불의한 수단으로 부를 획득한다 할지라도 이는 유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부를 탕진하게 됨을 지적한다. 이와 유사하게 잠 13장 11절에서도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라고 지적한다.

2) 공정한 부 획득에 대한 가치 평가

재물의 효능에 대한 초기의 낙관적 견해는 다양한 방향에서 수정되었다. 잠 10장 2절과 11장 4절에서는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리 재물이 많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진노의 날에 죽음의 위협에서 자신을 건질 수 있는 것은 공의뿐이라는 성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재물에 의지하는 자는 자신을 패망시킬 수 있으므로, 의를 추구해야 번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잠 11: 28). 결국 의로운 재물만이 자손 대대로 상속 가능하다(잠 13: 22; 참조, 잠 13: 25).

그래서 지혜와 명철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잠 16장 16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함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천명하였다.

8. 종교적 동기를 통하여 분배 원칙의 공정성 강화

잠 18장 9절과 11절에서 단순한 현상을 표현한 초기 구절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즉, 잠 18장 10절에 종교적 동기가 부여된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참조 아래).

- 9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 10 아혜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 11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여기에서 잠 18장 9절에 따르면, 게으른 자는 가난해진다. 또 잠 18장 전체에 흐르는 전후 문맥으로부터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이며(잠 18: 1), 동시에 악인이다(잠 18: 3, 5). 따라서 잠 18장 10절에 따르면, 게으른 자, 즉, 악인은 아혜에게 피난을 간다 하여도 그를 위한 피난처는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에서 잠 18장 10절은 잠 18장 9절의 내용을 강화시킨다. 다시 말하여 종교적 동기는 분의 분배의 원칙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 18장 11절의 내용은 잠 18장 10절에서 수정되고 있다.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 부자가 공정한 경쟁, 즉, 정의로운 수단으로 부를 얻을 때에만 그에게 안전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종교적 동기는 공정성의 원칙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⁴⁾

잠언에서는 야훼의 성품에 근거한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여 분배 원칙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시키기도 한다. 그 예를 잠 10장 3절에서 볼 수 있다.

- 2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 3 야훼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잠 10장 2a절에서 공정하지 못한 수단, 즉, 불의에 의한 재물은 무익하다고 하였다.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잠 10장 3b절에서는 악인의 소욕을 물리친다고 하였다.¹⁵⁾ 그리고 잠 10장 2b절에서는 공의를 죽음에서 건진다고 하였다. 이는 잠 10장 15a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의 내용을 수정하여, 공동체적 가치, 즉, ‘공의’로 대체시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당한 수단’에 의해 획득된 재물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내용이 잠 10장 3a절에서 “야훼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라고 반복된다. 여기에서는 종교적 가치를 통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¹⁶⁾ 이와

14)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종교적 동기의 부여가 공정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읽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뢰거는 잠 18장 10절의 안전을 신뢰할만한 안전으로, 잠 18장 11절의 안전을 세간 떠도는 거짓된 안전으로 보아, 상호 대립되는 것으로만 읽었다. 참조 O. Plöger, *Sprüche Salpmos* (BKAT 1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 1981-84), 212쪽. 텔쿠르트도 이와 유사하게 주장한다. H. Delkurt, *Ethische Einsichten*, 102-106쪽. 화이브레이는 이러한 종교적 동기의 목적을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와 거만한 부자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다고만 하였다. R. N. Whybray, *Wealth and Poverty in the Book of Proverbs*, 64-68쪽.

15) 여기에서 악인의 소욕(목적어)을 물리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문맥상으로는 잠 10장 3a절의 주어(주어)가 계속되어 야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잠언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3a절과 3b절을 분리하여 본다면, 3b절의 주어는 사회적 통념, 즉,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이 주어라면 잠 10장 2a절과 동일한 내용이다.

16) 이와 유사한 견해를 O. Plöger, *Sprüche Salpmos*, 124쪽에서도 볼 수 있다. 스킨라릭은 동일한 어휘와 대칭적(chiastisch) 구조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편집적 지평에 놓인다고 주장한다. 참조 R. Scoralick, *Einzelspruch und Sammlung. Komposition im Buch der Sprichwörter Kapitel 10-15* (BZAW 232),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169-175쪽.

유사하게, 잠 15장 25절에서는 “야훼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라고 기록한다.

이러한 판단은 사물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종교적 성찰을 낳기도 한다. 잠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라고 결정한다(참조, 잠 16: 9). 뿐만 아니라, 잠 19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한다(참조, 잠 16: 1; 16: 2).

한편 이러한 구절은 약간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을 넘어 신비한 하나님의 결정과 섭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구약성서의 후기 신학 사상과 일치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도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위 구절들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결정을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무의하며 인간의 이해를 넘어 작용하는 신비한 결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위 구절들에서의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의 성실성, 정직 및 의로운 행동을 보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수단에 의한 계획과 음모는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잠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는 충고도 이러한 범주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분배 원칙의 공정성을 해치는 어떤 수단에도 매달려서는 안 되며, 야훼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수단에 의존할 때, 그 결과에 대하여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 것을 충고한 말씀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충고한 잠 15장 16절의 말씀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라고 한 잠 22장 1절의 말씀은 이해할만하다.

9. 상거래 및 경제활동의 공정성

1) 선물 혹은 뇌물에 대한 입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이 자신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잠 10: 15; 18: 11). 이와 마찬가지로 선물¹⁷⁾도 매우 긍정적

17) 여기에서 다양한 용어로 언급하였다. 잠 17장 8절(잠 17: 23)에서는 **ἄδω**, 18장 16절(잠 19: 6;

으로 이해하였다. 잠 19장 6절에서는 선물이 많은 친구를 만든다고 하였다(참조, 잠 14: 20; 19: 4). 또한 잠 21장 14절에서는 선물이 노를 쉬게 할 뿐 아니라, 맹렬한 분노도 그치게 한다고 하였다. 또 잠 17장 8절에서 선물은 보석과 같아,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끈다고 하였고, 잠 18장 16절에서는 선물이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물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태도의 배후에는 재물과 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선물을 마련하는 재화를 성실하게 노력하여 얻은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선물은 부의 분배에 대한 공정한 원칙을 허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낙관적인 입장과는 달리, 선물이나 뇌물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먼저 잠 17장 23절에서 뇌물을 받는 자를 악인이라 칭하였으며, 또 뇌물이 재판을 왜곡한다고 하였다. 이는 선물이나 뇌물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공정한 룰을 허물 때 이는 분명히 불공정한 경쟁이 된다. 이러한 선물과 뇌물은 공공의 사회질서를 위해할 뿐 아니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사회적 악으로 작용한다. 또 잠 15장 27절에서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는 뇌물을 주는 자는 악인이며, 따라서 악인의 길이 평탄치 않음을 지적한 구절이다.

2) 공정한 상거래

잠언에서 추구하는 부의 분배 원칙은 노동의 대가만큼, 즉, 개인의 근면과 게으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허무는 상행위나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경계한다. 먼저 잠 16장 11절에서는 각종 저울이나 저울의 추는 아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결코 사사로이 왜곡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규범이다. 따라서 상행위는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속이는 저울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였다(잠 11: 1; 20: 10; 20: 23).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정적 가치 평가(악인)를 통하여 공정성의 원칙을 강화할 뿐 아니라, 종교적 가치 평가를 통하여 공정성의 원칙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21: 14)에서는 **ἰσο**를 사용하였다. 이 단어들은 어원적으로 선물과 뇌물 모두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원적 의미보다는 문맥적, 보다 정확히는 사회사적 맥락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공정성의 원칙을 해치는 부정한 상행위에 대해서도 잠언에서는 엄격히 경계한다. 잠 11장 26절에서는 곡식의 독과점이나 매점매석의 부당 행위를 경계한다. 단순한 현상의 묘사를 넘어, 백성의 저주와 (아마도 하나님에 의한) 축복에 의해 동기가 강화되었다.

3) 보증에 대한 입장

한편, 특이한 점은 잠언에서 보증의 무익성과 어리석음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참조, 잠 11: 15; 17: 18; 20: 16). 보증을 경계한 이유는 단지 손해를 볼 위험에 동참했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보증은 집단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제 행위로서, 이는 노동에 상응하는 분배와 같은 개인적 책임의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 잠 17장 18절에서는 보증을 지혜롭지 못한 자의 행위로 규정하여, 정의로운 경제 질서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10. 구제에 반영된 공정성

왕정 시대 초기 이스라엘 사회는 이미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채무에 의한 노예 제도도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예 해방법도 제정하였다.¹⁸⁾ 이러한 점은 잠언에서도 마찬가지다. 원초적인 상황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의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주장한다.

잠언에서 구제의 강조는 자신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잠 21장 13절에서는 그 반대로 남의 어려움을 외면했을 때, 자기가 도움을 청할 때도 외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잠 11장 24절에서는 구제를 한다고 하여도 큰 손실이 생기지 않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인색하게 아껴도 가난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잠 11장 25절에서는 구제를 하여도 더 풍족해질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내적 논리에 의해 구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주장한다.

원초적인 상황에서 평등한 출발점을 이루려는 노력은 구제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하여 더욱 강화된다. 잠 21장 26절에서는 구제하는 자를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다른 이에게 베푸는 자로 이해하며, 이를 의인이라 불렀다.

18) 참조 한 동구,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또 잠 22장 9절에서는 구제하는 자는 양식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는 자이다. 이들은 다른 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선한 눈을 가진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받을 자로 높이 평가했다. 여기에서는 구제의 필요성에 대한 강화를 넘어, 가치 평가라는 외적 논리를 통하여 보다 강화하고 있다.¹⁹⁾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교적 동기를 부여하여, 구제의 필요성과 의의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잠 14장 21절에서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받을 자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잠언에서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 대하듯 하라고 하였다. 잠 14장 31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고 하였고, 또 잠 17장 5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고 하였다.

잠언에서 흔히 보이는 인과율(행실대로 갚아준다)이 종교적 동기 안으로 들어와 더욱 공고해졌다. 예를 들어, 잠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홉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가 그의 행실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행함에 따라 거둔다는 분배의 인과율적 원칙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종교적 동기가 결합되어, ‘행실대로 (하나님에 의해) 갚아 준다’로 변형되었다.

11. 요약과 계속적 연구를 위한 과제

잠언에서는 합리적인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행위에 따른 부의 분배를 통해 공정성을 얻고자 했다. 공정한 부의 분배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치평가를 덧붙이기도 하였다. 더욱이 종교적 동기를 통하여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잠언에서는 경제활동을 공정성 위에 세우고자 하였다.

공정한 경제 질서의 확립은 다원적 제국에서의 다양한 구성 성분을 통합하는 중요한 원리로 세워졌다. 공정한 분배 원칙 하에서는 다윗이 거대한 거국을 건설

19) 내적 논리란 경제적(혹은 경제 내적) 논리를 말하며, 외적 논리는 경제적(혹은 경제 내적) 논리를 넘어 사회적(혹은 공동체적) 논리를 말한다. 종교적 동기 역시 외적 논리에 속한다.

하면서 보여주었던 새로운 정신(탈 계층, 탈 성별, 탈 민족적 원칙)이 함께 작용될 수 있다.

공정한 경제 원칙 하에서 지파 사회로부터 거대한 국가로 발전하면서, 국가 경영을 위해 무수한 새로운 인재가 필요할 때, 인재 등용의 원칙도 볼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근면하고 성실하여 적시에 일하는 인물들을 관리자의 자질을 갖춘 자로 간주하였으며, 반대로 게으른 자를 부림을 받는 자로 간주하였다(잠 12: 24).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근면하여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잠언에서는 슬기로운 자로 가치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가 또한 관리자의 자질로 왕에 의해 관리자로 등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잠언에서는 원초적 상황에서의 평등한 출발점을 얻으려는 노력도 경주하였다. 가난한 자를 위해 다양한 배려를 주장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배려를 종교적 동기를 통하여 더욱 강화시켰다.

잠언의 지혜 신학자들이 공정성 확보를 통한 사회 정의를 추구하듯이, 이러한 노력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초적 상황에서의 평등을 확보하려는 잠언의 노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잠언이 전제하는 사회적 상황에 비해 훨씬 복잡해진 21세기 상황에서는 더욱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2. 참고문헌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김영사, 2009). 원제는 Michael J. Sandel,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 박 준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운동,” 『구약논단』 제 8집 (2000년), 133-149쪽.
- 브루지만, 「지혜전승연구」 (장 일선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원제는 W. Brueggemann, *In Man We Trust*.
- 제임스 L. 크랜쇼(강 성열 옮김), 「구약 지혜문학의 이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존 롤즈,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03). 원제는 J. Rawls, *A Theory of Justice*.
- 천 사무엘, “잠언연구의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제 14권 4호(통원 30집 2008년 12월 31일), 147-166쪽.
- 폰 라트, G., 「구약성서신학 III」 (허 혁역), (경북: 분도출판사, 1980).
- 한 동구,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Delkurt, H., *Ethische Einsichten in der alt. Spruchweisheit* (BThSt 21),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 1993).
- Fuhs, H.F., *Sprichwörter* (NEB 35), (Echter Würzburg: Echterverlag, 2001).
- Gemser, B., *Sprüche Salomos* (HAT 1/16),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1963).
- Goldingay, J., "The Arrangement of Sayings in Proverbs 10–15," *JSOT* 61 (1994), 75–83쪽.
- Hausmann, J., *Studien im Menschenbild der älteren Weisheit* (FAT 7), (Tübingen: J. C.B. Mohr/Paul Siebeck, 1995).
- Meinhold, A., *Die Salomos* (Züricher Bibelkommentare 16), (Zürich: Theologische Verlag, 1991).
- Plöger, O., *Sprüche Salomos* (BKAT 17),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 1981–84).
- Preuß, H. D., *Einführung in die alttestamentliche Weisheitsliteratur* (Urban-Taschenbücher 383), (Stuttgart/Berlin/Köln/Mainz: Verlag W. Kohlhammer, 1987).
- Ringgren, H., *Sprüche* (ATD 16,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 Scoralick, R., *Einzelspruch und Sammlung. Komposition im Buch der Sprichwörter Kapitel 10–15* (BZAW 232),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 Toy, C. 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Proverbs* (ICC), (Edinburgh, 1899=1977).
- Whybray, R. N., *Wealth and Poverty in the Book of Proverbs* (JSOT 99), (Sheffield: JSOT Press, 1990).

검색어

공정한 사회
 경제정의
 부의 획득의 원칙
 인과론
 가치평가
 종교적 동기

‘Idea of impartial society’ reflected in the wisdom theology of Proverbs

Dong-Gu Han, Dr.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ungTaek University

With social attention to make Korean society more just and impartial, related academic discussions have been also heated up. Recently, two books concerning ‘justice’ have been published: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2003) and Michael J. Sandel’s Justice (2010). One of them, A Theory of Justice by Rawls, brings up ‘a theory of justice as impartiality.’

Ancient Israelite society came to be an empire, by David and Solomon. It was consist of various regions and nations and they were in harmony. They needed social systems in which rational economic justice works so that the members of the society may coexist in peac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entral part of the book of Proverbs (10: 1 – 22: 16) and see how economic justice and impartiality were sought.

The studies of the book of Proverbs have had so far difficulty to find a meaning of verses that seem to be arranged randomly without any connection to each other. So, this study proposes a new method of analyzing them.

Most of all, I categorize all verses in the book according to meanings. After that, I subdivide them by themes, and then make three stages of development in their progress of thoughts: (1) Early verses expressing simple phenomena, (2) Developed verses with value assessments, and (3) Developed verses with religious motivation.

Early verses expressing simple phenomena bear 'fortune earning principles' (=more effort earns more fortune). Under this supposition, they highly appreciate human efforts. These early optimistic economic view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most of the readers of the Proverbs have their own agricultural property. The theologians of the wisdom literature founded their principles of unity of the empire on causationism.

In this thought, every thing was managed by rationality. To enhance the rationality, external logic, i.e., assessment with value, was expressed in the verses. These external logic was reinforced by religious motivations.

Keywords

Impartial society

Economic justice

Principle of fortune earning

Causationism

Assessment of value

Religious motivation

■투고일: 2011년 5월 19일

■심사일: 2011년 7월 30일

■게제확정일: 2011년 8월 13일